

미국 시민단체의 현주소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박원순 지음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글쓴이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미 '아이젠하워재단' 초청으로 방미해 미국 시민운동단체를 둘러보고 쓴 보고서다. 실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에서 활동한 경력에 바탕해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사회인식, 각 시민단체의 회계 내역, 운동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을 들여다본다. 하지만 이런 딱딱한 내용 사이사이에 글쓴이의 독특한 시각을 덧붙여 글 읽는 맛을 더한다. 부록으로 미국 NGO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한국 주요 NGO 주소록을 담았다. | 김연수  
 예담/A5신/416면/12,000원



현실에서 출발한 지식인의 자기반성  
**《인문학의 위기》**  
 백원담 편역

바다에서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쥐들이 이를 감지한다. 동물적 감각으로 위기 경보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위기감지 시스템이 마비된 채 곧바로 격랑에 휩쓸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모두들 위기의 원인을 찾는 데 부산했다. 학계에서는 '인문학의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위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이런 사회상황을 반영한 듯 중국의 인문주의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소개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1993년부터 중국 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문주의 논쟁'의 전개과정과 사회적 의의 등을 정리했다. 논쟁의 촉발지점은 문학이었다. 문학이 대중에게 아부하면서 타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문학에서 점화된 논쟁은 학계 전체로 번지면서 인문학의 본질에까지 이르

렀다. 즉 '중국 전통 속에 인문정신이 있었는가' '인문정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새롭게 찾아야 할 인문의 길은 있는가'라는 화두로 비판과 반비판이 점입가경으로 이어졌다. 논쟁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즉, 중국의 구체적 인문현실에서 출발했다는 점, 철저한 자기비판에 토대를 뒀다는 점이다. 권력에 의해 제한된 담론의 장에서 전개됐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지만 중국의 당대적 현실 속에서 논쟁을 전개했으며, 창조적 인문정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인문학의 위기담론을 확산 시켜온 우리 지식계에 반성의 메시지를 던진다. | 박천홍  
 푸른숲/A5신/344면/10,000원



인간복제를 둘러싼 찬반논쟁  
**《클론 AND 클론》**  
 스티븐 제이 골드 외 지음 | 이한음 옮김

누구나 한번쯤 묻고 싶은 인간복제를 둘러싼 찬반논쟁과 가상미래를 조망했다. 인간복제는 불임부부나 유전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생물학적 혈연관계를 가진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인간복제는 자신이 원하는 아이를 만드는 제조술에 불과할 뿐이다. 이 책은 불완전한 인간이 복제기술을 완성할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과학, 윤리와 종교, 법과 공공정책 등의 각도에서 조망한다. 나아가 인류가 지금 고민할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 | 오원진  
 그린비/A5신/432면/13,900원

**통운의 유마경 풀이**

통운(通運) 지음/일지(一指) 옮김/432면/18,000원(양장)

“일체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다.”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유마경을 상세하게 해설한 주석서. 명나라의 학승 통운이 구마라습 역본 유마경을 해설한 《유마힐소설경통운직소》를 완역하고 상세한 주석을 붙였다. 대승불교의 인간 정신과 실천 교의인 보살 정신을 감동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행위철학**

F. 카울바흐 지음/이율상 옮김/320면/10,000원

인간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명을 시도한 행위철학 연구서. 행위를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으로 발표하는 전통 윤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행위를 '실천'과 '운동'이란 측면에서 구별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영국 경험론 연구**

이재영 지음/288면/9,000원

대륙 합리론과 함께 근세철학의 새 장을 연 영국 경험론에 대한 연구서. 로크, 버클리, 흄, 리드의 추상 관념 이론을 현미경 삼아 영국 경험론의 내부를 속속들이 보여준다. 우주의 중심을 인간으로 끌어내린 경험론의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 정신 속에서 근세철학의 세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천리안 phil6161

**인문학적 텍스트로 독해한 종교현상  
《종교읽기의 자유》**

박규태 외 지음

한국종교연구회 연구원들이 쓴 이 책은 종교현상을 하나의 인문학적 텍스트로 해체하고 상상하고 분석한다. 그 결과 종교가 의외로 풍부한 상상력의 광맥을 내장하고 있음을 읽어낸다.

저자들의 텍스트 독해법은 이채롭다. 바슐라르의 물의 상상력 개념을 빌어 창조와 파괴의 역설을 읽어내고, 단테의 《신곡》을 실마리 삼아 천국과 지옥의 변증법적 융합을 이끌어낸다. 모두 30편에 이르는 이 글을 꿰뚫는 정신은 인문주의다. 종교와 종교현상은 인간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라는 점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여준다. | 박천홍

청년사/A5신/400면/12,000원

**즈문해 앞둔 전세계 종말론 실태 조명  
《종말》**

데미안 톰슨 지음 | 이종인 · 이영아 옮김

새로운 천년에 대한 불안과 믿음이 혼재된 지금 종말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천년왕국의 도래를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시간의 끝은 어디인가> <새로운 밀레니엄, 종말론의 현장> 등에 대해 기술한 이 책은 전세계 종말론의 실태, 그리고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사회 심리적 원인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종말론의 현상으로 계시적 현상에 사로잡힌 서술, 국가를 상대로 테러를 감행한 일본의 음진리교, 카멜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정부와 충돌한 미국의 천년왕국주의자 등을 분석한다. | 오원진

푸른숲/A5신/436면/13,000원

**경제가 문화에 봉사하는 사회로의 이행  
《문화사회를 위하여》**

심광현 · 이동연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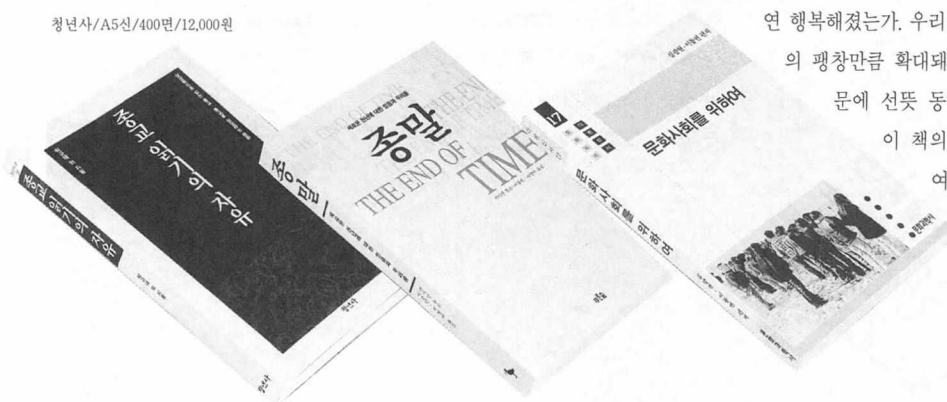
“우리는 실체는 못 보고 그림자만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정보의 동굴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쉽 없이 일하도록 만드는 기업주들로부터 시간을 다시 빼앗아야 한다.” 스탠리 아르노비츠의 <탈노동 선언>의 한 구절이다. 그는 덜 일하고 더 많이 받기 위한 급진적 운동을 전개하자고 선동한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급진적인 참여민주주의가 가능한 세계를 제안한다.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실에서 아르노비츠의 선언은 자칫 잠꼬대 같은 소리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이윤으로 우리는 과연 행복해졌는가. 우리 삶의 질은 물질의 팽창만큼 확대돼왔는가. 이런 질문에 선택 동의할 수 없다면 이 책의 주장에 귀 기울여보는 것도 좋을

리라. ‘문화사회’라는 새로운 전복의 문화 전략을 제안하는 이 책은 경제적인 조건을 외면하지는 철부지 같은 소리를 외치지 않는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문화환경을 조직화시켜나가자는 것이다. 즉,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거부 운동을 통해 문화환경의 공공성을 주장한다. 노동사회의 관습을 벗어나 다른 유형으로의 삶을 제안한다.

이 책에서 구체적인 실천강령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이윤의 계산을 넘어선 활동,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 등이다. 문화가 경제에 포섭되는 시장의 지배전략 속에서 경제가 문화에 봉사하는 ‘문화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꿈꾸는 이 책의 기획은 도발적인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 박천홍

문화과학사/A5신/320면/12,000원



<b>民事事典(上·下)</b> 연기영 著/값 各20,000원	<b>新法律用語事典</b> 이병태 著/값20,000원	<b>〔새 千年度 新版〕</b>  <b>새 천년의 최신 정보와 경쟁력 향상에도움이 되는 최상의 필비서</b>	<b>民法總則記述</b> 김동연 著/값18,000원	<b>會計用語事典</b> 고성삼 著/값10,000원
<b>商法事典(上·下)</b> 이병태 著/값 各20,000원	<b>稅務事典</b> 이규봉 著/값20,000원		<b>判例刑法記述</b> 조승형 著/값35,000원	<b>새어음수표법活用指針書</b> 장세두 著/값12,000원
<b>刑法事典</b> 형법연구회 編/값25,000원	<b>會計事典</b> 이규봉 著/값20,000원		<b>判例刑訴法記述</b> 조승형 著/값35,000원	<b>稅務用語事典</b> 고성삼 著/값10,000원
<b>登記事典</b> 정상태 著/값25,000원	<b>條解刑法</b> 김재덕 著/값25,000원		<b>鐵骨構造標準接合部(上·下)</b> 철골연구회 編/값 各25,000원	<b>建設關聯國家契約會計總覽</b> 대한건설법령편찬회 編/값28,000원
<b>勞働法事典</b> 이철수 著/값25,000원	<b>條解商法</b> 오유방 著/값24,000원		<b>會社書式契約實務</b> 오유방 著/값12,000원	<b>建築關聯 質疑·回信集</b> 대한건설법령편찬회 編/값28,000원

탈근대 담론의 수용을 위한 초석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윤난지 엮음

인간이 묻고 답한 테마 이야기  
**《1만년 동안의 화두》**  
 이용범 지음

아메리카 인디언의 사고방식과 세계관  
**《인생과 자연을 바라보는 인디언의 지혜》**  
 베어 하트 지음 | 형선호 옮김

이 책은 자크 라캉부터 에드워드 사이드까지 탈근대 담론을 극한으로 몰고갔던 석학들의 논문을 통해 우리 예술계에 화두를 던지려는 시도다.

근대철학의 전제였던 '주체'의 죽음을 선언한 담론, 미술자체의 제도변화와 미술제도 비판을 담은 글들, 미술이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휘황한 이론의 빛을 비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현란한 언어의 미술에 당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는 중심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무한한 사유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 박천홍

눈빛/A5신/544면/18,000원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종교와 철학, 과학이 탐구해온 화두를 묶었다. 죽음과 영혼을 다룬 장에서는 다양한 증거를 동원해 사후세계, 윤회, 부활과 같은 믿음을 부정한다. 신화와 종교의 본질을 파헤친 뒤에 신과 종말론, 인간에 대한 절망과 희망도 이야기한다.

소설가인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말은 인간이 건설하려는 유토피아.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생물 종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했다"고 질타한 그는 "인류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타주의를 유전자에 새기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 오원진

들녘/A5신/560면/15,000원

"어머니가 나를 들어 바람에 안기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강하게도 불고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불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늘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이 지구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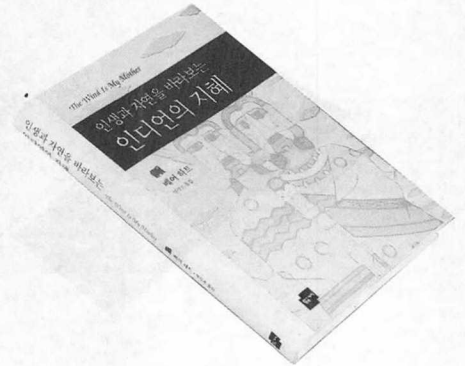
이 책은 한 인디언 주술사의 일생을 통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사고방식과 자연관을 보여준다. 머스코기 부족 출신인 베어 하트는 인디언 주술사로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과 인디언 부족의 가르침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베어 하트의 입을 빌어 인디언들은 자연의 조화를 깊이 인식하고 아름다운 삶 속에서 성장하라고 말한다. 어린 베어 하트가 노인에게 배운 것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사랑과 모든 것을 자연

의 일부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이었다.

시종일관 낮은 목소리로 회상하는 베어 하트의 목소리는 더없이 깊다. 예컨대 그의 스승 다니엘 비버는 임종 직전 '나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돼서 마음이 무척 기쁘다'고 말한다. 그리고 얼마 뒤, 주술사로서 노래와 주문을 외던 베어 하트는 문득 자신의 뒤쪽에서 스승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 선생님이 다시 걷고 계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 분이 얘기했던 거야. 내가 그 약을 갖고 나와 사용할 때마다 선생님이 다시 걸으시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을 돕는 그 약이 선생님의 인생이나 마찬가지로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 김연수

황금가지/A5신/338면/12,000원



## 출판물 유통 서비스의 품질보장 선언!

“미래도서유통은 출판문화 유통산업의 현대화를 위하여 21세기 일산 출판문화 벨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 합니다”

●보증금이 없습니다

-저렴한 물류 비용으로 경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0% 안전보장 시스템

-화재 · 수해로부터 귀사의 재산을 안전 보장해 드립니다.

●일일수거 배본 업무

-서울 · 지방을 차량으로 신속한 배본 100%

### 미래 도서유통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582-7  
 전화 · 0344)923-6571(代)  
 팩스 · 0344)923-4722

●최상의 입지조건과 넓은 공간(1,000평)의 활용

-신촌에서 25분(차량), 76번 노선버스(신촌←일산), 3호선 대화역

●원고기획 편집 제작 유통까지 책임 서비스

-각종 출판물 제작/출판프로그램 지원합니다.

●정회원을 위한 출판문화단지 조성사업

-21세기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초입

1930년대 우리문학탐구  
《월북 작가 소설 연구》

이미림 지음

진정한 쾌락주의로 가는 길  
《섹스의 영혼》

토마스 무어 지음 | 정명진 옮김

열정적 연애편지 304통  
《연애편지(1·2)》

시몬 드 보부아르 지음 | 이정순 옮김

30년대 문학공간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학세계에 나타난 사회상을 다뤘다. 3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이기영·이복명·현덕·박태원·이태준 등이 모두 월북했기 때문에 한 카테고리에 묶이지만, 이들의 작품은 리얼리즘적 경향과 모더니즘적 경향으로 나뉜다.

거시적인 틀에서 이 책은 두 경향이 1930년대라는 독특한 시대상황 속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내는데에 관심을 둔다. 카프 해산과 구인회 등장 등 30년대 문단의 급변과 파시즘 체제를 위한 근대화 과정의 상관관계를 천착하고 있다. | 김연수

깊은샘/A5신/394면/15,000원

우리는 성적 이미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섹스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사회·문화적인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섹스에 대한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섹스에 대한 편견에 의해 갇힌 삶을 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좀더 성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12년 동안 가톨릭 수도회의 수사로 생활한 저자가 쓴 이 책은 섹스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다. 신화에 등장하는 섹스의 요정을 살피는 것부터 육체가 갖고 있는 에로틱의 미적 개념, 남녀의 성기관이 갖는 의미, 그리고 섹스의 전형적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그

러나 이런 상세한 설명은 인간에 국한하지 않는다. 주변의 사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의 의미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저자는 “사물들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물질적 존재가 품고 있는 아름다움과 감수성을 잃어내는 심미안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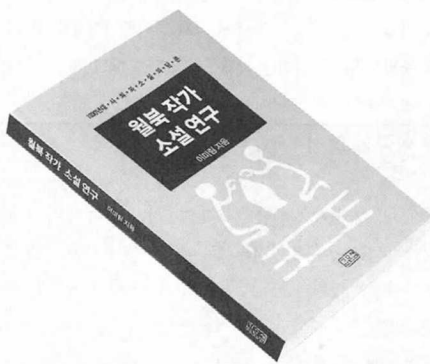
저자는 진정한 쾌락주의자는 심오하고 영속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기회에 민감한 사람이며, 더없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삶을 창조해 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질적인 면에서 즐길 수 있는 섹스, 그것은 함께 이를 수 있는 행복한 행위다. | 오원진

생각의나무/A5신/440면/13,000원

실존주의자이자 급진적 페미니스트였던 보부아르의 열정적인 연애편지를 담았다. 상대는 1947년 사르트르와 함께 미국 강연여행을 떠났다가 만난 미국 소설가 넬슨 엘그렌. 이후 파국에 이르던 64년까지 보부아르가 넬슨에게 보낸 열정적 편지 304통을 모았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소인 당신의 팔에 안겨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넬슨. 당신의 입술은 너무도 따뜻하고 달콤했어요, 내 사랑.” 보부아르의 작업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담기기도 했지만, 곳곳에서 만나는 이런 구절은 그 열정에 대한 탄복을 넘어서 관음증의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한다. | 김연수

열린책들/A5신/450면 내외/각 9000원



다름에는 원가 특별한 것이 있다!  
**darum** Publication Design Planning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의 홍수 속에서 차별화된 무엇 없이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뭔가 색다른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름기획으로 오십시오.

**다름기획** 12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5-1번지 5층  
TEL. 325-6260~1 fax 325-0944  
E-mail. darumman@uriel.net, darumman@hotmail.com

출판디자인의 모든 것 | 시각 커뮤니케이션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 · 패키지 · CI · BI · Annual Report 출판 커뮤니케이션 잡지 · 서사 · 사내외보 · 표지디자인 (단행본, 아동, 학습서) · 편집디자인 · 일러스트 광고 커뮤니케이션 신문광고 · 잡지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